

# 고흥군, 현장간부회의 개최... '지역활력 방안' 논의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고흥읍 역사문화공원 조성 현장과 금산면 거금휴게소에서 '6월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를 가졌다.

이번 현장 간부회의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부서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역사문화공원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거금휴게소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역사문화공원에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 현장시찰, 역사문화공원과 고흥전통시장을 연계한 고흥읍 활력 제고 방안, 중공식 준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18년 3월 고흥군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구청사 자리에 조성 중이었던 역사문화공원이 5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군은 오랜 기다림 끝에 역사문화공

원이 조성된 만큼, 시설물의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고흥역사문화공원은 조선시대 흥양현의 동헌건물인 존심당과 아문, 담장 등 문화유산을 활용해 군민휴식 공간과 고흥의 역사를 더욱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어서 찾은 거금휴게소에서는 황금빛 거금대교와 고흥 바다의 수려한 풍경 등을 감상할 수 있는 휴게소 내 루프탑 카페 조성과 거금·녹동권역 관광자원 집적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유발·충족시키기 위해 군이 보유한 역사문화·관광 자원들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군민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자원 연계·집적화 방안을 공직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자"고 주문했다. /최종민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6월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를 가졌다. 이번 현장 간부회의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부서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역사문화공원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거금휴게소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 제공

보성, 여름철 현장 영농 교육

보성군은 26일부터 '2023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 영농 교육'을 추진하고 주요 영농 정보를 카드 뉴스 및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비대면 영농교육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영농 교육은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보성읍 패상리를 시작으로 관내 7개 읍·면 10개 마을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여름철 주요 병충해 방제 및 재배 기술과 여름철 농업인 건강관리 등이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총 10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15개의 카드 뉴스(이미지뉴스)와 6개의 농업기술 동영상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과 SNS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모내기 이후 논 관리 및 병충해 방제, ▲태풍 대비 농업인 실천 사항, ▲고추 바이러스병 진단 및 방제, ▲사과·배나무 약제 살포 요령, ▲화상병과 궤양병 구분 방법 등의 당면 영농 기술 실천 사항을 비롯해 ▲농기계 안전 사용 요령, ▲토마토 병해충 및 생리장해, ▲토지 이용을 높이는 토양조사 등의 시기별 핵심 정보로 이뤄졌다. /장종수 기자

## 진도, 공약사업 추진 사항 보고회 가져 100개 공약사업 중 30건 완료·70건 정상추진

진도군이 최근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공약 사업 추진 사항 보고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희수 진도군수 주재로 공약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문제점 분석,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를 통해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를 핵심 기조로 ▲다함께 잘사는 산업 혁신 ▲모두가 행복한 복지 혁신 ▲인재를 키우는 교육 혁신 ▲찾아서 머무는 관광 혁신 ▲군민을 섬기는 행정 혁신 등 5대 목표 아래 100개 공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수산물야 예산 30% 편성 ▲전지역 학생 100원 버스 실현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 등 총 30건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완료

후에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아리랑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등 총 70건의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공약 이행률이 30%로 나타나 민선 8기 김희수 진도군수 공약사항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행정 절차 이행, 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 정부와 전라남도, 유관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공약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 군수는 "공약은 지역 발전을 바라는 군민들과의 약속이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배섬 진도군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평 기자

## 해남군,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모집

해남군은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선발된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7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군 실과소와 읍면 등에서 행정사무 및 현장업무 체험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총 134명이며 취약계층 등의 우선선발 20%, 향우자녀 선발 10%, 일반선발 70%로 선발유

형을 구분해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군에 있는 2년제 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신청기간은 7월 3~5일까지이다. 군 실과소(관광지 포함)의 경우 해남군 누리집, 읍면사무소(지역아동센터 포함)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7월 13일 오후 2시 해남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면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참석자에 한해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결과는 7월 14일 군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를 통해 공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누리집(https://www.haenam.go.kr) 배너 및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총무과 행정팀(061-530-5236)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윤보현 기자

##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현장체험 진행

장흥군청소년수련관(관장 하주자)은 최근 2023년 현장체험활동 1차 재난&안전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청소년 활동 범위를 넓히고 청소년기에 필요한 사회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안전 체험활동은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환경과 재난 상황에 대비해 청소년들이 적절한 대처능력과 행동양식을 배울 수 있도록 산악 안전, 호우안전, 지진안전으로 구성됐다.

참가한 총 20명의 학생들은 산악 클라이밍, 외출타기, 흔들다리 건너기, 침수차량 대피, 침수계단 대피, 지진시 건물내 대피하기, SOS신호 보내기, 응급가방 쓰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백두연 기자

## 완도군, '스마트 관광 지도' 시스템 구축

완도군은 인터넷·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맞춰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는 인터넷 주소창에 'wando.dadocae.kr'를 입력 또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완도군 스마트 관광 전자 지도'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에는 권역별, 해수욕장, 문화재, 공원, 청산도 슬로길 등 주요 관광지 정보는 물론 내비게이션·길 찾기 기능 등 교통과 맛집, 숙박업소, 행사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지별로 아이콘을 적용해 관광지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했고, 스탬프 투어 등 관

광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음성 안내 기능과 외국어 기능도 추가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스마트 관광 지도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어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시책을 추진해 관광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나영 기자



“무안공항과 연계한 광주 군 공항 이전”발언 무안군민 버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즉각 사과하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무안군 의회·전남도의원(나광국·정길수)